

01 교회소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하반기 영적 성장 프로젝트와 제22회 말씀퀴즈대회 및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식 소식.

02 생명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받지 못할 것이 없다.

03 기획특집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주 안에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후 요로결석을 치료 받는다 하면 굵었던 허리가 퍼져 지팡이 없이 걷게 된 성도들의 간증.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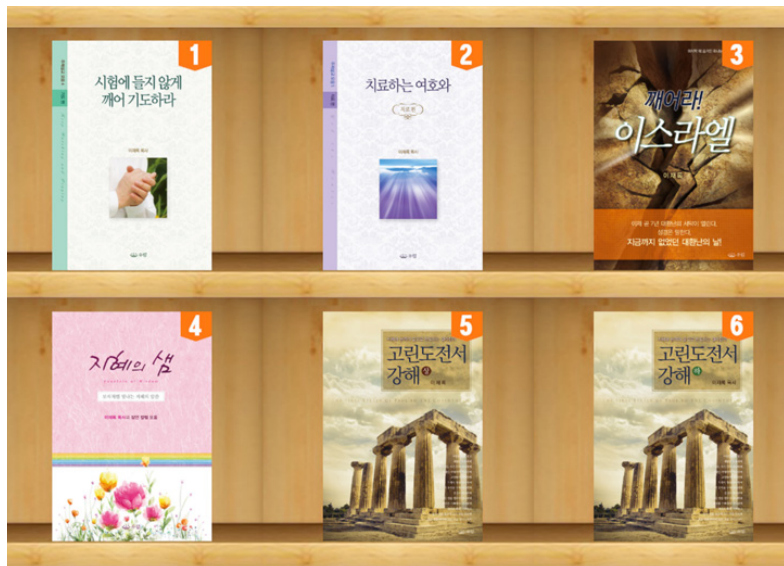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어깨의 가장 큰 힘줄이 끊어져 빨리 수술해야 했으나 믿음으로 기도 받은 뒤 깨끗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서주명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1001호 2023년 9월 1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 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당회장님 저서 읽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는 9월 1일부터 교역자회에서 주관하는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가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 행사는 전 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성경 읽기’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전반기 ‘성경 읽기’에 이어 후반기에 ‘당회장님 저서 읽기’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9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치료하는 여호와』, 『깨어라! 이스라엘』, 『지혜의 샘』, 『고린도전서 강해』(상, 하) 총 6권을 선정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줌으로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깨닫게 하고, 『치료하는 여호와』는 질병 치료의 근본적인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깨어라!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을 담고 있으며, 『지혜의 샘』은 성경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잠언 칼럼 모음집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강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밝은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영적 성장은 물론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및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식



지난 9월 3일 주일 저녁예배 시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다.

이날 파송된 문신현 목사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으로, 향후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아프리카 전역에 전파할 계획이다.



문 목사는 타 교단에서 목회 사역 중 ‘만민뉴스’를 통해 권능의 역사를 접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와 신앙 서적 등을 대하며 성결의 복음에 크게 감동해 2009년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제19기 과정을 수료하고 케냐 단기 선교사로 11개월 동안 선교했다. 2011년부터는 우리 교회 교구장을 맡아 현재까지 15교구장, 해외교구장, 연합성결신학교 및 만민국제신학교 교장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

제22회 말씀퀴즈대회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성구 한 절 암송하기’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는 2000년부터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로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22회를 맞이한 ‘말씀퀴즈대회’는 9월 3일 주일 오후 6시에 본선 및 결선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GCN스튜디오에서 치러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주보에 실린 성구 365구절의 시험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했으며, 본교회 및 전국 지교회를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39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인 결과 최종 22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수상자 발표 후 시상식은 9월 24일 주일 저녁예배 시 있을 예정이다.

한편, 대회 첫 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본선에 오른 고경석 집사(1-3남선교회, 2001년 대상 수상자) 등 말씀 암송을 꾸준히 실천해 온 출전자들이 많아 은혜를 더했다.

9월 4~24일,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

‘은사 집회(9. 22. 금), 교회 창립 41주년, 성전 이전’을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9월 4일부터 24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인도로 진행 중이다.

기도회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 진행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GCN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축복받아 가고 있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브리서 11:17~19)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동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큰 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100% 믿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행함을 보여 영육 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1.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1) 육신의 생각을 동원치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약 4천 년 전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며, 아내 사래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물론, 하란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지요. 데라는 그런 속에서도 순수 혈통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해 왔으나 어느 순간 점점 빠져들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마저 물들지 않도록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 독립하게 하시지요(창 12:1).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연단의 시작과 함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창 12:2~3).

아브람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에 어떤 생각도 동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길을 떠났습니다(히 11:8). 이렇게 순종해서 떠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람은 아무 미련 없이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화복(禍福)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람은 사람의 재앙과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계

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고향을 떠난 지 얼마 후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아내 사래를 보고 매우 아름다워서 왕 앞에서까지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래의 모습이 궁금해진 왕이 궁전으로 불러들이지요. 이렇게 하여 아브람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창 12:14~15).

이러한 일은 당시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사래를 취하는 대가로 아브람에게 후한 대접을 하며 많은 가축과 노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래가 아브람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아브람에게 다시 돌려보냈지요(창 12:17~20).

아브람은 잠시 마음고생한 것 외에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바로에게 받은 가축과 은금으로 인해 그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오히려 영육 간에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은 더해졌고, 더욱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이 축복받아 점점 부유해지자 그와 함께한 조카 롯도 복을 받아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마침내는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기자, 아브람은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합니다(창 13:8~9). 손윗사람이면서도 조카에게 더 좋은 곳을 취하라고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물이 넉넉한 더 좋은 땅을 택해 떠납니다.

아브람이 선을 좇아 땅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람과 롯은 유목 일을 하고 있었기에 가업 번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축복이 그

러한 육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13장 14~17절에 “...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선을 좇아 행하니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축복의 관건입니다. 물론 육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가령, 사업을 한다면 스스로 하려고 하거나 내 능력껏 일구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정도를 좇아야 하고, 선을 행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생사(生死)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람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있었지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이후에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 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있음은 아셨지만, 그 믿음의 증거를 얻기를 원하셨고 믿음을 확증시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만전하에 드러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자 집에서 기른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창 15:3).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또한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을 보라 하시며 “하늘의 뭇별같이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라”고 비유까지 들어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큰 자)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여 열국의 아버가 될 것을 말씀하시며, 아내 ‘사래’에게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지요. 그리고 다음 해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과연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롬 4:18~22).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나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거듭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죽은 것 같은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된 사실 앞에 정녕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작 얻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창 22:2).

번제란 짐승의 각을 떼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갈라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인데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 마음에는 조금도 슬픔이나 원망 같은 것이 없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았습니다. 이윽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지요(창 22:12).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살리실 것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히 11:17~19).

2.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한 결과,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창 24:1).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하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구원 얻은 영혼들이 머무는 율음부를 관장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 감당하였습니다(눅 16:22). 이 밖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결과였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 되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 건강의 축복도 받아 장수하였습니다. 그는 이삭을 낳은 후에도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는 회춘의 복까지 받았으며 물질의 축복도 넘쳐났지요.

하나님을 정녕 믿고 사랑한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범사에 복을 받으며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받은 뒤 돌이나와 요로결석을 치료받았어요!”

김난희 집사 (62세, 2대대 11교구)

2023년 6월 19일 오전 7시경,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더니 갑자기 심한 구토가 나오고 죽은 피까지 넘어왔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자동응답서비스)를 두 번 받으니 곧바로 통증과 구토가 멎어 편안해졌지요. 그런데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려고 하자 다시 극심한 통증과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지요.

병원 검진 결과, 요로결석이었고 약을 한 주간 복용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토로 인해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고, 통증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6월 21일, 조은영 교구장님이 심방 오셔서 저는 병명과 함께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도저히 걸을 수도 없는 제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교구장님은 요로결석을 치료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전해 주시며 제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제게 얹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지요. 저는 “아멘! 아멘!” 하며 간절히 기도 받는데 감동함이 임했습니다.

저는 교구장님을 배웅해 드리고 3일 만에 2시간 정도 잠을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단잠을 자고 나니 몸이 개운했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았는데 변기에 작은 돌 두 개가 보였지요. 바로 결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후 극심했던 복통과 구토, 한기와 식은땀 등의 증세가 싹 사라져 몸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간증

“이젠 지팡이 없이도 허리를 펴고 잘 걷습니다!”

남정득 집사 (88세, 중국 2교구)

2010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 척추협착증이었습니다. 허리에 신경이 막혀 있어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허리 통증은 물론 걸음을 제대로 걸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를 펴 수가 없어서 지팡이 없이는 가까운 거리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내던 저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던 2023년 7월,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치료받고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7월 31일, 그토록 사모했던 하계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교육 및 은사 집회’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며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환자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서 성도님들이 치료받은 간증을 할 때 단 앞쪽으로 나아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지요.

그때 허리 부위에 시원한 느낌이 들더니 허리를 펴 수 있었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년 넘게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팔을 잘 움직일 수 없었는데, 팔을 높이 들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아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진 어깨 힘줄도 치료해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2023년 2월 8일, 제가 집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크고 무거운 솜이불을 들고 베란다 밖으로 터는데 잘 안 털려서 이불을 힘껏 아래로 내던지다시피 털고 다시 한번 더 힘껏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고, 그날 밤은 오히려 발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x-ray 촬영 후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한 주간 복용하라고 하였으나 약을 먹어보아도 통증과 오열, 한기가 심해질 뿐이었지요.

일주일 후, 2월 16일 병원에 다시 갔을 때는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 선생님은 “어깨의 힘줄 중 가장 큰 힘줄이 끊어졌으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한 후 2월 17일, 사위가 소개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였고, 담당 의사 선생님의 일정으로 인해 2월 22일로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8일 토요일 밤 샤워하는데, 갑자기 ‘내가 당회장님 계시면 당연히 기도 받으려 갔을 텐데 지금 당회장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직무대행님께 기도 받으려 가야지!’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고 응답받는 것을 듣고 보았을 뿐 아니라 저 또한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2월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이 신속히 매매되고 구입하는 일이 있었지요. 2005년 11월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3개월이 지나도 매매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었고, 부동산에서도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이 되었지요.

그래서 당시 금요일야예배 전, 집을 급히 팔고 사야 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그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오후 5시경에 집이 팔리고 밤 11시 30분경에 이사할 집도 계약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집주인이 10일 안에 중도금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에도 우리 집을 산 분이 그 시간에 바로 돈을 보내주어 중도금을 줄 수 있었지요.

이처럼 3개월 넘게 매매되지 않던 집과 이사할 집이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뒤 곧바로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체험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 초에는 허리를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눕고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언가를 붙잡아야만 움직일 수가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보니 꼬리뼈가 깨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와 상관된 일이 전혀 없었기에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 아마 제가 아기가 때 기어다니다가 떨어지면서 다쳤는데 젊을 때는 근육이 받쳐주어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 근육량이 떨어지니 받쳐주지 못해 그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허리 4, 5번 디스크 파열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허리가 늘 빠근하고 불편했습니다. 일을 앉아서 하는 직종을 선택할 정도였지요. 바로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이유도 모른 채 불편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니, 수술은 권하지 않고 앞으로 지팡이 짚고 조심히 다니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지요.

때마침 당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가 진행 중이어서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어, 어, 어!”하며 ‘치료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야예배 전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할렐루야!

이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한 바 있으니 끊어진 어깨 힘줄도 병원에서 수술받지 않고 기도 받아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9일 주일 저녁예배 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오른쪽 어깨에 시원한 느낌이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후에는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지요. 80% 정도 치료받은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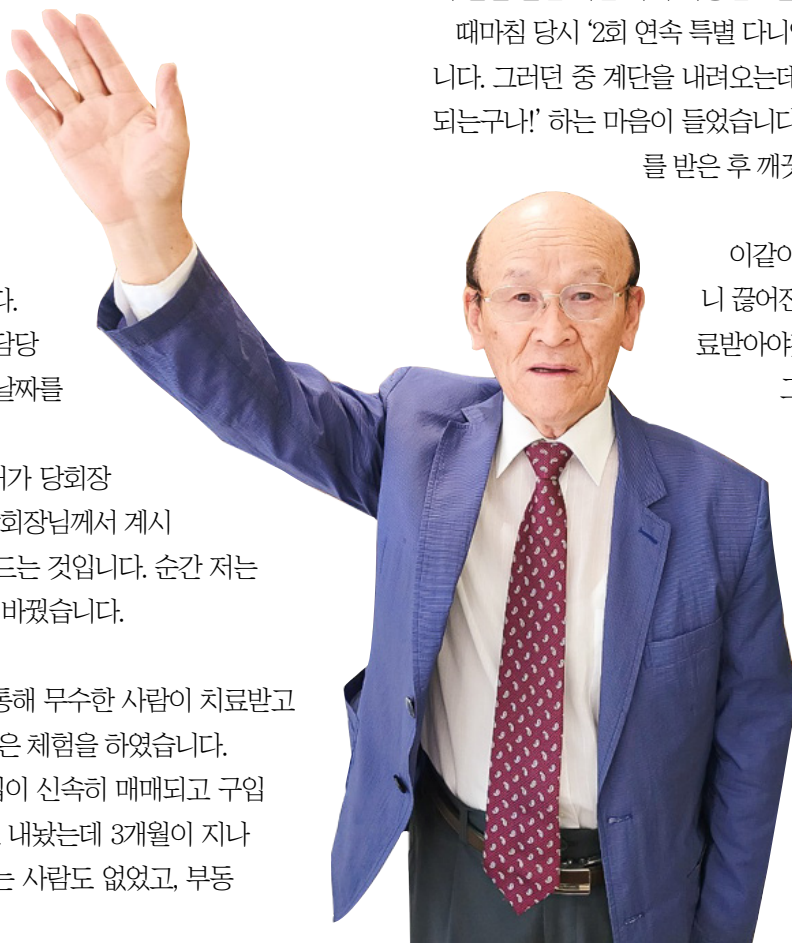
저는 27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려 주셨고, 이 일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 마음의 변화를 결단하였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지난 3월과 5월에 열린 은사 집회 때마다, 특히 7월 31일부터 있었던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는 21

일간의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정성껏 기도하며 더욱더 변화되기 위해 노력했지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마침내 수련회 첫날 ‘교육 및 은사 집회’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100%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옮기고 팔을 움직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그 은혜가 항상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마음의 변화를 이뤄 참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 따스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서주명 집사 (81세, 3대대 19교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염사면 향관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전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면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